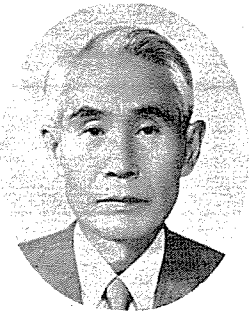


元老科學技術者の 証言

私心버리고 歸國, 紡織工場세우려다 뜻뚫이뤄



吳 禎洙 博士 篇

◎ MIT 공대 2년편입

나는 1899년 平南江西郡甌山面 한 村落의 빈 한한 農家에서 태어났다.

때는 韓末開化期여서 金弘集의 斷髮令이 내려졌고 新學文教育機關인 學校가 여기 저기에 설립되기 시작한 때이다.

내가 여섯살되던 1905년 한햇동안 舊式 書堂에서 千字文을 배우다 다음해인 1906년 어느날 나의 先親보다 먼저 開化된 族親에 의해 彰新小學校에 끌려가 斷髮을 하고 入學하게 되었는데, 별로 항거하지 않고 받아들였던것 같다.

彰新小學校에서는 國語, 地理, 算數, 歷史, 理科 등 新學文을 5년간 수업했다. 나는 彰新小學校때부터 理科에 興味를 갖고 공부한 나머지 시험성적은 항상 滿点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나중에 工科大学을 택한 동기는 아니었다.

小學校를 졸업할무렵 우리 家勢는 더욱 기울어져 平壤이나 京城에 있는 상급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농사 짓기를 1年-

◎ 略 歷 ◎

- 1899. 7. 9 평남 강서 出生
- 現 종로구 청운동 38-1 거주 ☎ 73-1334
- 1927~美國 MIT 工科大学卒業
- 1928~평양 충실전문학교 교수
- 1929~日本穀産工業(株) 技師
- 1945~48 商工部長官
- 1948~69 韓國貿易協會 副會長
- 1951~현재까지 韓國貿易振興(株) 社長
- 1954~大韓商工會議所 議員
- 1960~逋信部長官
- 1960~78 韓國葛布工業(株) 理事會長
- 1969~74 韓國貿易協會 顧問
- 1970~현재까지 韓國輸出雜貨試驗檢査所理事
- 1977~78 서울 國際싸이언스클럽 회장
- 1978~현재까지 태양에너지 協會會長
- 著書: 太陽에너지의 利用과 實際

이무렵 小學校 시절에 가장 친했던 급우 金奎恩군이 나를 찾아와 平壤光成學校에 갈것을 권했다.

그학교에서는 貧寒한 학생들에게 일거리를 주므로 열심히만하면 학비는 물론 숙식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1912년 平壤光成學校 6학년에 金奎恩군과 같이 입학했다. 그러나 金군은 1학기도 끝나기 전에 美國으로 건너가고 나는 2학기가 되자마자 京城 倣新中學校 1학년 보결생으로 들어가 3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苦學을 해야 했다.

그때 나는 倣新實業場에서 織造工으로 있으면서 綿布를 짜주고 받은 勞賃으로 學費와 宿食費 일체를 조달하여 공부를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학교 공부였다. 그해 가을부터는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渡美준비를 했다.

나는 그동안 모은 80원을 가지고 이듬해 봄 上海로 건너가 약 1년반동안 滞在하면서 英語를 익혔고 내가 北美 샌프란시스코에 닿은것은 1917년 8월-

막상 미국에 와서 學校에 들어가자니 學費 마련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言語障礙였다. 그래서 正規학교는 가지 못하고 小學校과정인 Summer School 6학년에 編入했다. 1학기(6개월)를 마친 내가 會話에 어느정도 익숙하게 되자 7학년으로 올려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1년반만에 8학년 수업을 마쳤고 졸업때 나의 英語실력은 Jaledictory연석까지 할 정도였다. V

나는 그곳에도 Highschool이 있었으나 좀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시애틀市的 Broadway High School로 갔다.

물론 그학교는 월사금이 없었다. 美國의 Public School은 高等學校까지도 월사금이나 잡부금이 없으므로 책만 자기돈으로 사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가 이학교를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나의 渡美스폰서였던 朴濟穆씨의 약간의 도움과 신문배달로 벌은 돈으로 1

년간의 Broadway High School을 修學했다. 또여름방학에는 알라스카魚場에 있는 통조림공장에 가서 勞動도 했다.

나는 이곳에서 번 몇백불을 가지고 코로라도 덴버市로 갔다. 나는 그곳에 가서 품팔이를 하면서 2년간 Eastside High School을 졸업했다. 그후 高等學校는 Extra study로 3년간에 걸쳐 所定의 科目을 修了했다.

나는 이때 工科大学입학을 놓고 하버드냐 아니면 M.I.T냐로 고민하던 중 스칼라십이 많은 하버드공과대학 시험을 치르기로했다. 그러나 나는 英語와 歷史에 落榜하여 不合格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를 실망하지 않고 보스턴대학을 무시험으로 들어가 2년간 수학한 후 다시 M.I.T 2학년에 編入, 1927년에 졸업했다. 學位는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administration.

이로써 나는 學位를 받기까지 고향을 떠난지만 12년만에 上海,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거치는 동안 劬한 苦學과 逆境을 딛고 決心 하나 만으로 目的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내 고생은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었던지 더 많은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메세추세스 공과대학(M.I.T.)을 졸업하고 歸國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고민했다. 당시 나는 약 6개월간 工業계통기업에 취직하여 工業經營의 경험을 쌓은 후 귀국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두가지 이유로 취직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첫째 취직하기 위해 미국시민이 되어야했고 또 미국시민이 되기위해 내 자신을 위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싫었으며 둘째 당시 美國經濟는 1929년 大恐慌을 앞두고 날로 위축되어 大學卒業者들의 취직이 어려웠다.

그해 工大졸업생을 선발하여 2~3년간의 自社訓練으로 證件사원양성을 목표로하고 있는 美國의 大企業은 손뼉을 정도였다.

그런데 나는 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入社하여 半年間만 근무하고 귀국한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했으며 또 雜職을 통해 經驗을 쌓는다는

것도 단지 一身의 生活을 當爲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하여 공부한 보람을 잃게 된다고 판단하고 귀국길을 택했었다.

◎ 韓國에 紡織工場 설립계획

내가 M.I.T 在學時 보스톤 近郊 풀리버에는 2~3명의 한국유학생이 있었다.

紡織技術 (Textile Technology)을 공부하는 崔熙松, 楊宇朝, 李永華씨 외에 보스톤大學의 吳翊殷씨 (Business Administration), 金活蘭씨 (宗敎學), 柳滢基씨 (神學)와 그리고 하버드大學에 河敬德씨 (社會學)가 있었는데 이들중 崔熙松·楊宇朝·吳翊殷씨와는 귀국후 나와함께 우리나라에서 紡織工場을 설립하기로 약속한바 있었다.

우리들의 紡織工場 설립계획은 民族資本을 動員할 수 있는 우리의 希望的 목표였는데 결국 실현은 보지 못했다.

나는 1927년 10월 楊宇朝씨와 함께 귀국했었다. 우리 둘은 귀국 즉시 약 3~4 개월 간의 국내여행을 하므로 12년이상 떠났던 고국의 현상을 살살이 알아 보았고 또 고향 有志實業人들을 찾아 紡織工場 설립 자금동원 가능성을 알아봤다.

나와 楊宇朝씨는 紡織業에 대한 學術的 지식은 좀 가졌다하더라도 實際經驗이 없는 것이 흠이었던 그때, 우리나라 經濟與件에서 數拾, 數百萬圓의 所要資金 捻出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었다.

楊宇朝씨는 이를 단념하고 上海로 가버리고 나는 우리나라에 남아서 機會를 보기로 했다.

나로서는 큰 失望이었으나 완전 패배했다고는 여기지 않았다. 機會만 있으면 民族工業을 어떻게든지 일으켜보겠다는 決心을 굳게 가졌다.

그후 취직이 된곳은 崇實專門學校 科學部一.

그때 崇專에서는 科學敎育을 위해 宣敎部 財政으로 學校區內에 3층 벽돌건물을 짓고 理工系敎授를 모집했다.

물론 崇專은 工學科허가신청을 총독부에 내놓고 그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工學科허가가 나올때까지 講習所명목으로하여 설치하고 학생모집을 했는데 필수과목인 高等數學을 나더러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崇專敎師로 취임했다.

이보다 앞서 나는 귀국후 얼마않되어 세브란스 病院長 Dr. Erison을 만난 일이 있었다.

그는 나를 돕기위해 총독부 철도국에 있는 大村局長에게 나를 소개했다.

나는 역시 총독부 관리되기를 원치않았지만 Erison 원장의 성의를 저바릴수 없어 大村局長을 찾아 보았다. 나는 그를 만나 무슨 일을 시켜 주겠느냐고하자 大村은 日本人 人事課長을 불러 한참 의논한 끝에 佛語雜誌번역을 해주었으면 했다.

이어 그는 鐵道局에서는 日本말을 모르는 나의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佛語雜誌번역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같은 말을 들은 자리에서 그런일은 취미가 없으니 희망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은 후 崇專 科學館 敎師로 취직된 나는 월급이 125원이어서 생활은 어렵지 않게 꾸려 나갔으나 나의 目標했던바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더우기 科學部 학생들도 졸업후 취직이 잘 않된다하여 공부에 熱意도 없었다.

나는 크게 失望하였다. 崇專에서 약 1年間 있은 후 大同고무工業社라는 신발製造業體에 들어갔으나 역시 내게 안맞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어느 날 新聞에 美國會社 하나가 韓國에 進出하기 위해 平壤에 踏查왔다고 보도되었다. 그 會社이름은 Corn product Co. 이였으며 Erison씨등이 日本 神戶오리엔탈호텔에 투숙, 工場設置計劃을 하고 있다 하였다.

나는 이러한 新聞記事를 읽은 즉시 Erison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의 간단한 소개에 이어 취직을 바란다고 쓰고 내가 필요하거든 알려 달라고 했다.

내 편지를 받은 Erison씨는 平壤에 도착하는 날을 가르쳐주고 그때 鐵道호텔에서 만났으면 한다고 回信이 왔었다.

그리하여 그가 平壤에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다.

1930년 그가 平壤을 찾던 날, 나와 그는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를 반가이 맞은 그는 『Corn Product Co, 平壤工場은 지금 건축계획중이므로 현지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Ferguson Construction Co, 平壤建築事務所에 일단 채용했다가 Corn Product Co, 平壤工場이 준공된 후 本社에서 정식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美 建設会社 平壤事務所 근무

나는 이때부터 大同고무工業社에서 Ferguson Construction Co, 平壤事務所로 옮겨 일했다.

그러니까 나는 1930~1932년까지 만 2년간 Ferguson Construction Co. 에 고용되어 2,000,000弗 짜리 Corn Product Co. 平壤工場건설을 위한 提方測量·地質檢査·用水井戸굴착·建築工事監督등을 하느라 東奔西走했다.

당시 Ferguson Construction Co, 는 日本東京地震復旧工事を 위해 東京에 나와서 Corn Product Co, 平壤工場건축을 請負맡았던 것이다.

이 工場設計는 일체 Corn Product Co, Engineering Dept에서 했고 Ferguson, Construction Co, 는 施工請負로서 總工費의 5% 커미션만 받기로 契約했었던 것이다.

數万坪의 大小工場建物과 그안에 설치할 數千톤의 機械, 電線, 파이프配管등은 Chicago Office에서 치밀히 설계, 製圖하여 보내온 것을 제자리에 틀림없이 配置한 것은 나에게 좋은 技術的인 經驗이었다.

技術이란 그때 그때 닥치는 문제를 臨機處理하는 것만이 아니고 짜임새있게 事前設計를 해서 設計者가 아닌 다른 施設팀이 순서있게 맞춰 施工하는 것임을 實際로 보고 배웠는데 그것은 내가 M.I.T 4학년 在學時節 포드自動車會社 보스톤工場見學때 Chain Conveyer式作業工程을 보고 느낀것과 같이 크게 감명을 받았다.

포드工場에서는 1910년에 5人乘 승용차 1대에 470弗씩에 판매하였다. 이같이 싼값으로 新發賣品을 내놓은 것은 포드技術者들의 能率生産의所

産이었다.

콘베이어式 工程이란 工場위에 걸어놓은 콘베이어를 진행시켜놓고 밑의 방바닥엔 橫으로 線을 그어놓아 그 線마다에 職工한명 또는 2명(所定作業에 따라)이 配置되어 미완성機體가 자기 線안에 통과하는 동안에 所定作業을 마치도록 한 것이다.

職工들은 작업중 자리를 뜰 수 없고 콘베이어는 작업시간동안 정지하지 못하도록 조립되어 있다. 이렇게 하므로 많은 職工들의 근로상태를 감시할 필요가 없어 人件費節減은 물론 作業能率을 최대화 한 것이다.

이와같이 난생 처음 포드會社에서 見學한 콘베이어工程을 보고 놀랐는데 생각지도 않은 기회에 또한번 技術의 극치를 보았던 것이다.

◎ Corn Product Co 의 教訓

내가 참여하여 건축한 Corn Product Co, 平壤工場은 單一原料인 옥수수를 가지고 콘스테크·

콘시럽·콘오일·콘슈가·콘프레이크즈·섬유질 사료등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는데 葡萄糖인 콘시럽과 콘슈가를 제외하고는 옥수수粒子를 澱粉, 胚芽油, 단백질, 섬유등으로 연속분리하는 복잡한 工程을 통해 製品化하는 것이며 콘시럽과 콘슈가는 건분을 加酸糖化하여 만든 것이다.

이는 水式分解이므로 모든 운반은 펌프로 행해진다.

倉庫에서 물이 흐르는 도랑에 原料인 옥수수를 사람이 쏟아 넣으면 펌프를 통해 운반케 되는데 만들어진 제품은 마지막 부분에서 포장되어 入庫케 된다.

이같은 作業工程은 1次시작하면 晝夜24時間 2~3개월간 멈추지 않고 運轉되어야하며 따라서 職工들은 8시간씩 3교대 작업을 하게 된다.

나는 1933년 평양에 새로 세워진 Corn Product Co, 공장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채 1년도 못되어 불가피 사표를 내게 되었다.

내가 退社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내 자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이때 Corn Product Co, (후에 日本穀産工業 株式会社로 改稱)는 설립초 Factory Staff 를 韓國 사람 중심으로 하여 출발했던 것이다.

美國 시카고 本社에서 韓國學生 3명을 채용 製造部分折所 發電 및 機械補修를 담당시키기 위해 美國에 파견 훈련까지 받은후 근무케 하였으며 이들의 월급은 250弗이었다.

그때 나는 日本人 大卒級과 같이 70弗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데서 발단이 되었다. 試運轉도중에 工場長으로 美國人이 왔었는데 그는 技師출신으로 성미가 과격하여 비위에 거슬리면 現場에서 파면까지 시킨다. 그러나 그는 성격만 급했을뿐 일만은 能力本位를 우선으로 했다. 이러한 그는 어느날 日本人 3명(製造部·發電部監督·分析所)과 함께 우리 나라 사람 한 명을 파면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런일이 잇혀지기도 전에 또 자기가 데려온 美國人監督 2명을 현장에서 파면하고 本國으로 보내 버렸다.

이무렵 나는 파면된 美國人 자리인 製造工場 全体監督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월급도 450원으로 경충뛰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급격한 파면소동은 日本人들이 美國人工場長을 모략할 좋은 구실로 삼았던 것이다.

日本人들은 道庁에 보고하기를 「美國人 工場長이 韓國사람만 登用 優待하고 日本人들은 蔑視하고 있다」 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道知事は 「적당한 日本人補佐員이 없으므로 그러한 問題들이 발생한다」고 회신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日人通訳官을 추천 起用케 했다. 그는 명분만 통역관이 지 사실은 工場 動靜을 살피는 道庁諜者였던 것이다.

그는 社内 움직임을 調査, 道知事に 보고하기를 「이工場은 韓國人이 많이 登用된 反面 日本人들은 沒落되어가고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자 道庁은 美國人 工場長에 대한 간접적

인 압력을 가했다.

즉 工場의 第2人者(工場長 다음)로 日本人을 雇庸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事態가 일어날것 이라고 工場長에게 위협했다.

工場長은 나를 매우 좋아했으나 道庁이 노리는 目標가 내자리인 監督임을 알고 難處한 표정이었다. 하루는 그가 내게와서 하는 말이 「당신 자리는 다치지 않도록 할터이니 前任 建築監督 河村을 名目上 日本人 總監督으로 데려올터이니 그를 認定해 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반대한다 해서 그가 못올리 없어서 나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河村이 다시 오게 됐다.

그는 入社가 되자 내分野인 製造까지 干與하고 나섰다. 내게는 차마 命命은 못하고 내 소속 직원들에게 命命을 내리곤 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그가 내 上司行勢를 할려고 하는데 참으로 역겨웠다.

나는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工場長의 만류를 뿌리치고 우리 나라 사람 두명과 함께 辭表를 던져 버렸다.

그때가 滿州事變이후 日本의 背面思想이 한창이어서 美日合作會社의 社長들을 日本人社長으로 強圧 交替시키는 때이라 美國人 工場長도 日本人을 다루기가 매우 힘들었다. 나는 그와같은 처지의 工場長을 理解못하는 아니었으나 韓國 사람인 나의 立場은 美國人과는 달랐다.

내가 그會社를 그만두자 나를 아는 주위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고 주시했다.

나는 그러한 것에는 개의치 않고 오직 日本人에 대한 感情을 어떻게 복수할것인가 하고 골물했다.

그래서 나는 Corn Product co.와 버금가는 企業體를 만들어 競争商品을 제조하기로 하고 工場을 세우기로 작정했다. (계속)

